이번엔 李-孫 ‘정체성’ 충돌

〈명박〉 〈학규〉

李 “70·80년대 빈둥대던 사람” 발언

孫 “민주화 세력에 대한 도전” 반발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이 연일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70, 80년대 빈둥빈둥 대던 사람’ 발언을 계기로 정체성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이 전 시장의 발언에 대해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필두로 한 당 안팎의 이른바 ‘민주화 세력’이 비판의 목소리를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초 원희룡, 고진화 두 대선주자의 이념문제로 홍역을 치른 지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이념과 정체성 공방이 경선국면의 변수로 등장하면서 게임의 룰, 검증 등으로 확산일로를 치달아온 대선주자간 힘겨루기는 한층 복잡한 양상을 띨 전망이다.

또한 ‘6월 경선실시’ 쪽으로 큰 가닥이 잡혀가면서 기존의 ‘박근혜-이명박’ 대립구도는 완화되고 있는 반면, 경선룰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손 전 지사가 정체성 논란의 한복판으로 발을 들여놓음으로써 ‘이명박-손학규’ 대치가 강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 전 시장은 즉각 “진의가 왜곡됐다. 내가 바로 민주화 세력 아니냐”며 조기진화에 나섰고, 측근 인사들도 “이 전 시장이 고대 재학 중 ‘6·3 사태’의 주동자로 군사재판에서 5년 구형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의 발언을 민주화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파문 진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손 전 지사 측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한 데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서도 ‘이명박 때리기’에 본격 가세하는 형국이어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선 룰 협상과 관련, ‘경선불참’이라는 배수진까지 치고 있는 손 전 지사 측이 이 문제를 고리로 이 전 시장과 확실한 대립각을 세울 태세여서 논란 확산을 예고하고 있다.

손 전 지사는 지난달 28일에도 작심한 듯 이 전 시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변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세력 때문에 한나라당이 냉전·수구 꼴통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의 주류세력이 냉전세력으로 남아 있는 한 지금의 대세론은 거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의 이 발언은 박근혜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을 동시에 겨냥한 측면이 강하지만 실제 공세의 초점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전 시장에게 맞춰져 있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체성 공방으로 인한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초선의원은 “진의가 어떻게 됐든 말이 오해를 낳고, 그 오해로 당 대선주자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러다가 당이 적전분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무슨 얘기 나눌까 차기 국무총리 하마평에 올라 있는 김우식 과학부총리와 전윤철 감사원장(왼쪽부터)이 지난달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정부업무평가 보고회에 참석, 김만복 국정원장(오른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DJ “범여권 대선 단일후보 내야”

천정배 의원 등 면담서 통합 필요성 첫 언급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28일 열린우리당 탈당그룹인 ‘민생정치준비모임’ 소속 의원들을 만나 “민생모임이 열린우리당을 나왔지만 단일한 통합정당을 만들거나 최소한 선거연합을 이뤄내 단일한 후보를 내세우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동교동 자택에서 천정배 의원 등 민생모임 소속 의원들의 예방을 받고 이같이 밝힌 뒤 “그것(통합정당, 선거연합을 통한 단일후보 선출)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자,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켜 준 국민의 뜻을 받들고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치사에 있어 국민은 양당제를 선택해 발전시켜왔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양당제의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민생정치모임이 교섭단체도 안되고, 소수로 고독하지만 얼마나 국민의 뜻을 받드느냐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양당제 구도에 기반한 범여권 통합의 메시지를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열린우리당과 우리당 탈당그룹, 민주당 등 범여권 각 정파가 통합 또는 연합해 한나라당에 대항하는 단일전선을 이뤄내야 한다는 뜻을 적극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대통령이 선거연합이나 통합 등 구체적 방법을 적시하며 연말 대선과 관련한 범여권 통합 후보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올 대선정국에서 그가 범여 통합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지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호남지역을 방문중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고흥군 나로도 우주항공센터를 찾아 센터 측이 마련한 백두산 위성사진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南 “경의선 연내 개통을”

남북 장관급회담…北 “대북지원 즉각 재개”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측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를 상반기에 시험운행을 거쳐 연내 개통하고 4월 중 이산가족 대면상봉 개최 등 인도적 사업을 빨리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

북측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이번 회담 종료 즉시 전면적으로 재개하고 남북적십자회담 및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를 열며 6·15 및 8·15민족대축전 행사에 남북 당국이 참가하자고 제의했다.

남북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평양 고려호텔에서 1시간10분간 열린 장관급회담 전체회의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6자회담의 2·13합의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행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책임참사는 중단된 모든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회담 종료 즉시 전면적으로 재개하고 적십자회담도 열자고 제안했다. /평양=공동취재단

“깨끗한 지도자가 강한 리더십”

박근혜, 이틀째 호남 공략… 외곽 조직 특강도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광주·전남 방문 이틀째를 맞아 호남 민심 공략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특히 그간 경선 행보를 하면서 한 번도 지방에서 숙박을 하지 않았지만 전날 고흥 인근의 한 호텔에서 숙박을 해 호남에 대한 애정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건설 현장을 방문, “21세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나로우주센터는 이를 위한 굳건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 전 대표는 오후에는 광양으로 이동,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를 방문해 자신이 제안한 ‘U자형 국토개발’의 현실화 방안을 설명한 뒤 곧바로 상경했다. 자신의 외곽조직인 ‘강북포럼’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선진화를 위해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의 미리 배포한 연설문을 통해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가 지배하고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서번트(servant) 리더십’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소속 구의원 해외연수비 민노당 “반납하라” 결정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이 소속 구의원에게 최근 다녀온 해외연수에 대해 소속 정당이 ‘목적에 벗어난 연수’라며 연수비를 반납하라는 결정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다.

28일 광주 광산구 의회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의회 김모 의원과 최모 의원이 지난해 12월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에 대해 이들 의원의 소속 정당인 민노당에서 연수비로 사용한 구의회 예산 130만원을 반납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두 의원은 음식물자원 사료화 시설을 시찰하기 위해 일본 센다이시로 해외연수를 떠나기로 계획을 세웠으나 당초 이용하기로 한 여행상품이 취소되자 계획을 변경, 오사카시를 2박3일간 방문했다.

이들은 일본에서 도심공원과 자전거 도로 등을 시찰하고 보육시설 지원 관계 공무원과 인터뷰하는 것으로 연수 내용을 대체했다.

이들의 연수가 원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은 연수 당시 통역을 담당했던 일본 여성이 민노당 광주시당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알려졌고 당에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두 의원의 연수가 원래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판단, 연수비를 반납하라고 결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책노선 싸고 내부갈등 격화되는 與

일부 의원 ‘공정거래법·사학법 재개정’ 반발

정계개편 정국에서 잠시 진정될 조짐을 보이던 열린우리당의 내부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최근 우리당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시키는데 ‘참여’하고, 한나라당과 사학법 재개정 협상에 착수한 것을 놓고 당내에서 조직적인 반발이 일어난 것.

채수찬 의원은 제3정조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과정이 원칙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당직사퇴를 선언했다. 채 의원은 “공정거래법의 정무위 통과가 현 지도부와의 의견 조율없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상식과 원칙에 맞는 당 운영을 하지 않으면 당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무위 소속인 김현미 의원은 “특정 재벌기업과 야당의 정치공세에 명분없이 굴복하는 정부와 우리당 일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도부를 공격했다. 김 의원은 장영달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 의장, 박병석 국회정무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책임론을 제기했고, 특히 신학용 정무위간사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신학용 의원은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4월15일 출총제 기업집단 지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서울”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 상륙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TV방송출연 교수진/저자직강★
개강 3月2日 첫진도 시작반 (주간반,야간반) ·재직자 무료 수강생 야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1위! 새롬행정고시학원 ☎361-8111 서구청앞(농성동)

2007년(上) 제17기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모집
■ 모집요강
■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종별 및 연수방법
■ 접수처: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763-6 호반2차상가 2층 (첨단단지)
▶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수료 및 졸업후의 특징
제 7회 전국 한자한문 3·2급 지도사 자격 검정시행 공고
• 일 시: 2007년 7월 7일(土) 15:00
• 접수기간: 2007년 5월 28일~6월 16일(3주) • 응시자격: 국민누구나 응시가능
• 응시교과: 3급지도사: 1단계 70문제/2급지도사: 1,2단계 100문제
●시행 및 주관: 한자한문 지도사 자격인준회 ●후원: (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 (사)국어고전문화원
광주지역본원 062)971-4747, 972-4747, FAX.973-4747 (야)973-4477, 휴.017-610-9393, 017-609-9393

희소식 수강료 환급과정
가정주부 실업자 자영업자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수강료 환급
출석률 80%이상시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무관※
전국 최강의 강사진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유명 출판사 저자 직강※
탁월한 합격 시스템
◉출·결관리 ◉학습 성취도에따른 개별 분석지도
◉자습실, 사물함 무료 사용
합격률 1위 A+ 현대고시학원 236-2467~8 (동부경찰서 옆)

국가직/ 지방직 시험대비 www.mdgosi.co.kr
9급공무원 전직렬 문제풀이 출제위원급 톱강사진 전격출강!
2007 공무원 대거채용 교정직 특채 2007년 700명 모집예상!
개강: 3월 2일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뒤 222-4560

공시생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한빛 – www.hanbitgosi.co.kr
2007 국가직/ 지방직대비 공무원
개설직종: 행정직, 교육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사회복지직, 군무원,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농업직, 전산직, 기술직
올 교정직특채 800여명 2007년 상반기
=한빛슈퍼파워틀= 올 문제풀이 한빛이 하면 多걸린다!
한빛공무원학원 개강 ▶3월2일 (홀/짝수반 매월 첫진도 개강)
북구청 건너편 전남대 후문앞 ☎234-0234